# ‘발레·퓨전국악’ 문화·예술 어우러진 광주 도심

## 시립예술단, 도심 공원 곳곳서 발레·클래식·국악 등 공연
## 광주시향, 더블베이스·창극단 공연·판소리 감상회 등 선사
## 역사민속박물관·시청야외광장·전일빌딩245선 ‘아트피크닉’

6월을 맞이한 광주 도심 곳곳이 싱그러운 초여름 내음과 함께 예술의 향기로 물들고 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나들이 가기 좋은 6월을 맞아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심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한다.

스트릿댄스부터 발레, 판소리에서 퓨전락(록을 기반으로 재즈, 클래식, 전통음악, 일렉트로닉 등 장르들을 융합한 음악)까지 눈과 귀를 사로잡을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가 열린다.

◇내 집 앞에서 누리는 공연예술

광주시는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지역 곳곳을 찾아 문화공연을 펼치며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과 휴식을 선물하는 ‘당신 곁에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첫째·셋째 토요일은 동구(ACC 상상마당), 남구(푸른길 공원), 광산구(쌍암공원)에서, 둘째·넷째 토요일은 서구(상무시민공원), 북구(양산호수공원)에서 문화공연이 개최된다.

6월에는 팝페라, 아카펠라, 댄스플래시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공연들이 광주 전역에서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광주예술의전당 소속 시립예술단이 직접 시민 곁으로 찾아가 발레, 클래식, 국악 등 품격 있는 공연을 선보여 시민들의 문화감성을 끌어올린다.

둘째주 토요일인 14일 상무시민공원에서는 시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공연Ⅰ-코펠리아 하이라이트’가 열린다. 같은 날 양산호수공원에서는 전통의 멋을 느낄 수 있는 시립창극단의 풍류 콘서트 ‘풍류 in 광주’를 만날 수 있다.

셋째주 토요일인 21일 ACC 상상마당에서는 K-POP, 트로트, 팝송 등을 아카펠라로 듣는 한국아카펠라협회의 ‘아카펠라로 전하는 설레임, 당신곁에’ 공연이 펼쳐진다.

푸른길 공원에서는 색소폰 연주와 합창으로 초여름 정취를 느끼게 해주는 JS엔터테인먼트의 ‘자연의 하모니’ 무대가 열린다.

쌍암공원에서는 해설과 함께 감상하는 시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공연Ⅰ-코펠리아 하이라이트’를 선보인다.

넷째주 토요일인 28일 상무시민공원에서는 시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공연Ⅱ-파우스트’ 등 갈라무대가, 양산호수공원에서는 대한민국 비보이팀 ‘갬블러크루’의 ‘해설이 있는 스트릿댄스-카르페디엠’이 열린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문화 체험

가족들과 함께 문화 체험을 즐기고 싶다면 이달 매주 토요일 광주역사민속박물관과 시청 야외광장, 전일빌딩245를 찾으면 된다.

광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혹서기 7월 둘째주~8월 제외)까지 광주역사민속박물관과 시청 야외광장에서 도심 소풍을 즐기며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아트피크닉’을 운영한다. 6월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열린다.

올해 주제는 ‘타임슬립’으로 과거·현재·미래를 경험하는 테마존으로 구성됐다.

과거존에서는 전통탈 만들기, 전통음식 만들기 등을, 현재존에서는 콜라보레이션 벽화, 스프레이 그래피티 등을, 미래존에서는 디지털 드로잉, AR 컬러링 등 시대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체험 콘텐츠를 선보인다.

아울러 광주시는 전일빌딩245에서 매주 토요일 시민문화체험 특화 프로그램인 ‘공감’을 진행한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요 장소들을 걸으며 사유하는 ‘인문투어’, 전일빌딩245 입주기관과 연계한 인문 강연 ‘전일245 클래스’, 청년공감 프로젝트 ‘왓츠인마이북’, 가족단위 체험행사 등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다시 돌아온 불토 명소 ‘대인야시장’

토요일 밤을 밝혀주는 광주의 대표 야간 명소인 대인야시장이 돌아왔다.

6월 한 달 동안 ‘만원의 행복’을 주제로, 만원으로 먹고 사고 즐기는 가성비 야시장 이벤트부터 주차별 드레스 코드 이벤트(빨강·초록·보라·파랑 의상)가 열린다.

푸드 마차를 통한 먹거리 판매와 셀러 체험 부스도 운영된다.

◇스포츠와 문화를 동시에

광주시는 광주FC 홈경기가 열리는 13일과 22일 광주월드컵경기장 남문게이트 앞에서 특별 문화이벤트인 ‘스포츠 문화마실’을 연다.

경기 관람객들이 축구도 보고 공연도 즐기며 가족들과 추억을 쌓는 특별한 하루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즈·팝 밴드 공연부터 미니축구, 가면만들기 등 키즈 프로그램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공연으로 구성됐다. 경기 시작 1시간30분 전부터 시작한다. 13일은 오후 6시, 22일은 오후 5시30분부터 진행된다.

◇‘공연 연극 전시’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

광주시립창극단은 25일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판소리 감상회’를 연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랑받고 있는 ‘심청가’, ‘수궁가’, ‘흥보가’를 통해 애잔하면서도 웅장한 판소리로 공연장을 감동으로 메울 예정이다.

광주시향은 27일 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제396회 정기연주회 ‘Contrast(콘트라스트)’를 개최한다. 고전주의의 정점인 베토벤과 20세기 후반 러시아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프로코피예프의 작품을 대비해 긴장과 조화가 어우러진 음악을 섬세하게 경험할 수 있다.

같은 날 소극장에서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제142회 정기연주회 ‘Noche de Maestra-젊은 마에스트라의 초대’ 공연도 열린다. 8세 지휘자부터 청년 국악 전공자들까지 국악을 전공한 젊은 지휘자들의 지휘 아래 다양한 국악관현악곡, 관현안합주곡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신명나는 국악에 현대적 감각을 접목하는 등 전통의 멋과 현대적인 감성이 어우러진 무대를 선보인다.

광주시립극단은 29일 ACC 예술극장 2에서 출장연극시리즈Ⅱ ‘리보와 앤’을 펼친다. 감정을 배우는 인공지능(AI) ‘리보’를 통해 소통과 연결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관객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5·18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을 기념하는 2025 민주인권평화전 ‘공명-기억과 연결된 현재’와 ‘남도 한국화 명작전’ 기획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예술을 통해 역사를 돌아보고 예향 남도 한국화의 진수를 감상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공연장에 가지 않아도 공원이나 광장, 도서관 등 시민 일상 속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준비했다”며 “문화로 힐링하고 일상에 활력을 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수 기자

# 고흥군, 6월 문화가 있는 날 ‘고흥예술정원’ 진행

## 6월 25일 전남 학도병 주제로 관객 참여형 연극 선보여

고흥군(군수 공영민)과 문화도시센터(센터장 서성훈)는 6월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고흥예술정원 프로그램을 오는 25일 오후 8시에 고흥 꿈꾸는예술터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흥예술정원’ 은 예술공동체 단디와 함께 〈삶에 새로운 감각이 필요한 당신을 위한 예술정원〉 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6.25 전쟁 당시 전남 학도병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이머시브(관객참여형) 연극을 선보일 예정이다.

6월 12일부터 사전 신청을 통해 이번 연극에 함께 참여할 관객 20명을 모집하며, 보호자 동반 시 8세 이상부터 참여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문화도시센터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학도병을 주제로 한 관객 참여형 연극이 고흥군민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고흥군이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 전남문화재단, 고흥군 문화도시센터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오는 7월 식물테라피, 8월 인형극 관람 및 인형 제작 체험, 9월 컬러테라피, 10월 즉흥 재즈 연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참여자들에게 풍부한 예술 체험과 깊은 치유의 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 전남도, 북한이탈주민 정착 이야기 담은 사진 공모

## 일상·감정·삶의 변화 등 다양한 순간 주제 23일까지 접수

전라남도는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경험을 사진으로 공유하고, 도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사진에 담은 나의 전남살이’ 공모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모전은 전남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일상과 감정, 삶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사진 작품을 통해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공모 대상은 전남도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 전남에 거주 중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정착 과정에서 겪은 다양한 순간들이다. 일터와 마을, 이웃과의 교류, 가족, 변화된 일상 등 정착을 느낄 수 있는 감정과 이야기를 담은 사진이면 자유롭게 응모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다. 입상작 발표는 7월께 전남도 누리집과 개별 연락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시상은 대상 1명(100만 원), 우수상 2명(각 50만 원), 입상 40명(각 10만 원) 총 43명에게 6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자는 7월 12일 ‘제2회 북한이탈주민의 날’기념행사에서 시상식과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관련 세부사항은 전남도 호남권 통일플러스센터(061-286-6772)로 문의하면 된다. /전혜정 기자